

정치 외도·감시 외면... 순수성 퇴색에 등돌린 시민



〈상〉 시민없는 시민단체

활동가·예산도 부족

정체성 훼손 '위기'

젊은 피 수혈 급선무

광주 시민단체가 위기가. 일부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하거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게 되면서 순수성을 잃어 시민들의 지지가 낮아지면서 '시민 없는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 항쟁 등 민주주의의 선봉장이었던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왜 이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현재 처한 위기의 원인과 돌파구는 무엇인지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광주 동구 국회의원 선거 범민주 시민후보 추대위원회’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공동대표를 광주시 동구 국회의원 시민 후보로 추대했다.

당시 공동대표는 출마의 변에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시민들의 심판이자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지율은 2.72%.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추대된 ‘시민 후보’가 거둔

성적적곤 너무 초라했다.

서정훈 광주NGO센터장은 “당시 총선이 정치적 선거 양상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녹여내는, 시민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결과였다”고 고백했다.

광주의 대표적인 A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말 공개제출을 통해 2명의 인력을 보강했다. 예초 4명의 인력을

충원하려고 했지만 2명 만 접수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 단체측은 젊은 피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해 선택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젊은층들이 많지 않다고, 사회 분위기도 변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후원금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후원금은 대략 11억 원, 평균 13억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는 점을 감안하면 10~20% 줄어든 금액이다.

다른 단체에 비해 재정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B단체는 인력이 부족하기 마찬가지다. 현재 활동가 수는 43명, 최소인력의 50% 가량만 활동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측의 설명이다. ‘허약한 내적 자원’은 낮은 처우,

80~90년대와 달리 사회적 의제 등이 제도권으로 많이 흡수되면서 시민단체의 정체성 찾기가 쉽지 않은 점, 시민과 호흡하는 게 아닌 ‘이벤트’ 중심 운동 등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초임 80만~120만 원 선의 낮은 임금은 시민단체로의 인력 유입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새로운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시민운동 활동가 연령층은 주로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그간 총선 낙선·낙천 운동, 지원금을 통한 공공기관 공모 프로젝트 수행 등의 형식으로 정치와 정책에 개입함으로써 세를 확장해왔지만, 정작 시민들의 참여가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단체들이 일반시민들과의 대화보

다 정치권이나 언론에 호소하는 데 치중했던 게 아닌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시민운동 활동가들 사이에선 원활한 인력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민단체 활동 자체가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시민단체의 정체성을 되찾아 젊은 피 수혈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담당 인력이 부족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광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이미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니원침 (8786) 김종두



모강인 전 청장 2년 구형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1일 해양 면세유 판매업자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모 전 청장은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해양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형유예형을 받은 신씨로부터 청장으로 재임하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필뉴스

맨홀 뚜껑 훔쳐 판 노숙인 부부

○...도로변에 설치된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 생계를 유지해온 30대 노숙인 부부가 쇠고랑. ○...목포경찰에 따르면 김모(37)·박모(여·32)씨 부부는 지난 2월 2일 새벽 2시에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 있는 맨홀 덮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8개의 맨홀 뚜껑을 훔쳐 고물상에 판매한 혐의.

○...동종 전과판 수습여가에 달하는 이들 부부는 맨홀 뚜껑을 고물상에 팔면 한 개당 3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다, 도로변에서 쉽게 훔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새벽 시간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목포시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걸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4년만에 또 털린 주민센터

두암1동, 화장실 물품 등 훔쳐 달아나... 방법 부실

4년 만에 동(洞) 주민센터 절도사건이 또다시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009년 6건의 주민센터 연쇄 절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다시 발생,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1일 새벽 3시20분경 광주시 북구 두암1동 주민센터에 누군가 침입해 비데(2개)·라디에이터(1대)·순간순수기(1대)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범인은 두암1동 주민센터 옥외 화장실 창문을 넘어 침입한 뒤 도구를

이용해 물품을 훔쳐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암1동 주민센터 화장실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2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특히 두암1동 주민센터 입구와 화장실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화면을 분석, 범인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또 직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4년 전 3월말~4월 중순 '동 주민센터 습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는 한편,

동 주민센터 주변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9년 4월 7일 오전 7시경 광주시 북구 중흥 3동 주민센터에 누군가 침입, 서랍을 뒤진 뒤 경보음이 울리자 달아났으며 일주일 뒤인 지난 13일과 14일 밤 사이 동구 계림 1·2동과 북구 두암 3동 주민센터에 누군가 침입, 금품을 털어갔다.

당시 중흥 3동 주민센터 절도사건은 최신 방법장치가 설치된데다, 경찰의 비상 경계망이 펼쳐진 상태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산시스템 스톱 민원인 불편

광주시 동구청 민원실 전산시스템이 1일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5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작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파트 계약 만료 통보안해 자동 연장”

장휘국 교육감, 5월까지 관사 폐쇄

약속과는 달리 아직도 관사에 살면서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일자 6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세입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아 아직 관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1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전 살던 자택의 2년 임대계약이 지난해 11월 초 만료됐으나 제때 통보하지 않아 자동 연장됐

다”며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이사하지 않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다음달 중순께 세입자가 집을 비우기로 했다”며 “그 때 자택으로 이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집을 두고, 전세를 얻어 이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교육감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와 교육계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국정감사 직후에 계약만료를 통보했으면 해결됐을텐데 이를 소홀히 해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관사 폐쇄”를 공언한 지 6개월이 되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11월 교육감 취임 이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마련된 60평형대 아파트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관사로 옮기면서 전에 살던 자신의 아파트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65만원을 받고 임대해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물선 충돌사고 피해 선주에 위로금

목포해경, 200만원 전달

목포해양경찰이 지난달 4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어선이 뒤집혀 두 동강이 난 선주에게 1일 위로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해경은 사고 이후 선주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모았다.

1급 시각장애인인 보호자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선주 김모

(52)씨는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어선을 잃고 살길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78), 부인(43), 자녀 2명(15·13세) 등 모두 5명이 함께 살지만 수입이 없어 당장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선주 김씨는 선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업 부진으로 쌓인 채무가 보험금 수령액보다 훨씬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종자 수색 기간에 실종자 가족의 현직 체류비, 부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문용 해경 서장은 “선주의 딱한 사정을 들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심일만 돈을 내놨다”며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신안선적 9.77t 닻저방 어선 대광호는 지난달 4일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남쪽 22km 해상에서 한국선적 2천967t LPG 운반선 어선어스호가 들이받아 두 동강 나며 선원 7명이 실종됐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정서코칭 및 학교폭력예방상담사 수강생 모집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한 사랑과 행복의 기술

- 교육일시: 1단계 2013년 4월 6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2단계 2013년 4월 13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단계 2013년 4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4단계 보수교육 2년간 4회 이수 - 1회: 5월 10일(금) 오후 6시 ~ 10시
- 교육장소: 광신대학교 전리관
- 제출서류: 입학원서 www.ayce.co.kr 첨부자료 다은 kcfce@hanmail.net 접수 문의: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 652-0675, 010) 8299-6237
- 교육비: 25만원 / (사전 접수: 3월 30일까지 입금 한하여 22만원) (입금계좌) 농협 355-0012-1260-13 예금주: (사)한국청소년상담교육협회 (보수교육비 별도 1회당 5만원 및 자격 검증비 별도/정서코칭 2급 5만원, 학교폭력예방상담사 3만원)
- 특 전: 포괄정서코칭지도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에 포함됨 포괄정서코칭지도사 과정: 정서코칭필수 + 교육2회, 임상 후 자격이수 정서코칭 + 아동가족심리상담사 두 강좌 접수시 혜택: 교육비 40만원

주관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www.kwangshin.ac.kr
후원 | fbc 광주주동방송 www.fbc.net

여성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2013-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CT 엘로비전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합리적인 결합상품 헬로셋

헬로tv + 엘로넷 + 엘로폰 = SAVE 최대 56%

1588-3450 디지털 방송은 헬로tv

*위의 할인율은 7월 31일까지 다스 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